

일본이 식민지에서 자행한 국어상용화 정책에 관한 일고찰*

송 숙 정**

(e-mail : suejoan@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2.4. 조선 |
| 1.1. 연구목적 | 3. 열강의 식민지 언어정책 |
| 1.2. 선행연구 | 3.1. 영국 |
| 2. 식민지에서의 국어상용화정책 | 3.2. 프랑스 |
| 2.1. 홋카이도 | 3.3. 네델란드 |
| 2.2. 오키나와 | 3.4. 미국 |
| 2.3. 대만 | 4. 나가기 |

키워드 : 国語常用(Japanese language use), 植民地言語政策(Colonial language policy), 方言札(Dialect), 罰札(Punishment), 内国植民地(Domestic colony)

1. 들어가기

1.1. 연구목적

열강들의 식민지 언어정책은 크게 직접 통치형 언어정책과 간접 통치형 자치주의 언어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통치형 언어정책은 교육에 의해 이민족을 동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피식민국에 본국과 동일한 학교를 세우고, 식민 본국의 언어를 가르친다. 여기에는 피식민국의 언어나 문화는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간접 통치형 자치주의 언어정책이란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6932)

** 중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식민지언어교육.

피식민국에 가능한 한 많은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다만 경제적인 면에서만 본국에 예속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종족어에 의한 원주민 학교도 설립하고 식민지의 전통과 예술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한다.¹⁾ 안타깝게도 일본이 조선에서 행한 식민지 언어정책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직접 통치형 언어정책으로 우리의 언어와 문화, 전통을 말살시키는 정책이었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1938년 조선에서는 전시국가 총동원령이 공포되고 조선 반도는 병점기지화된다. 이로 인해 조선은 전쟁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조선총독부가 전쟁을 위한 인적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 할 업무는 ‘황국신민화’ 이데올로기 교육과 함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국어(일본어)²⁾교육을 실시하는 일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조선 민중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이것을 일상어로 사용하게 하는 ‘국어상용화’ 정책이 국민총력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국어상용화’ 정책은 공공기관, 학교, 가정 등 도처에서 실시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언어정책이 처음에는 강제성을 띤 정책이었지만, 시일이 지남에 따라 식민지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일본어 교육에 나섰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이 식민지에서 자행한 국어상용화 정책의 배경과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내국식민지인 오키나와와 홋카이도에서의 국어 강제보급 정책과 해외식민지인 대만과 조선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나아가 열강의 식민지 언어정책과 일본의 국어상용화 정책을 비교하여 이러한 정책이 유독 일본만 택한 고유의 언어정책이었던지 아니면 타 열강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언어정책이었던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된 점은 내국식민지에 대한 인식이다. 나이토 타카오(内藤隆夫, 2011)³⁾는 내국식민지를 ‘근대 홋카이도가 근대 오키나와와 마찬가지로 혼슈(및 시코쿠, 큐슈)와의 격차 또는 그들과의 차별 아래 있는 가운데 일반 민중이 열악한 상태에 놓인 구조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라

1) 이성연(1988) 「열강의 식민지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p.8 재인용.

2) 본고에서 칭하는 국어는 일본어를 말함.

3) 内藤隆夫(2011) 「北海道近代史研究の課題」 『開發こうほう』 pp.28-32.

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내국 식민지’, 대만과 조선을 ‘해외식민지’라 정의한다.

내국식민지에서 행해진 국어 강제보급 정책과 해외식민지에서 행해진 국어 상용화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케가하라 유키오(竹ヶ原幸朗, 2010)⁴⁾에 의하면 강점초기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아이누 민족의 개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시동인’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아이누 민족을 ‘일본신민화’ 하는 것에 의해 아이누 보호를 실현하려고 하였고, 아이누 민족의 ‘일본신민화’를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된 것이 교육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실시된 ‘국어 강제보급’ 정책에 관해서는 요시무라 사야카(ヨシムラ さやか, 2013)⁵⁾, 마타요시 세이키요(又吉盛清, 2002)⁶⁾, 곤도 겐이치로(近藤健一郎, 2005)⁷⁾등의 연구가 있고 특히 ‘국어 강제보급’ 정책 중 방언표 실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해외 식민지인 대만에서 실시된 국어상용화 정책에 관한 연구로는 네즈 마사시(ねずまさし, 1997)⁸⁾가 있다. 그는 전쟁하의 대만에서 황민화교육을 강요하기 위해 언어정책이 실시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국어상용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에서 실시된 ‘국어상용화’ 정책에 관한 연구로는 구마다니 야키야스(熊谷明泰, 2006)⁹⁾의 연구가 독보적이며 그는 조선 각지에서 실시된 ‘국어상용화’ 정책의 모습을 1942년 당시의 각 지역의 군수도사 회의보고서를 바탕으로 고찰하고, 더불어 당시의 교육잡지와 신문기사에 나타난 ‘국어상용화’ 정책의 모습을 요약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식민지 각지에서 행해진 국어 강제보급과 국어상용화 정책을 살펴볼 수 있으나 지금껏 이를 통합하여 일본 식민지에서의 언어정책과 열강의 식민 언어정책과 비교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차별성을 가지고 본고

4) 竹ヶ原幸郎(2010) 『教育のなかのアイヌ民族—近代日本アイヌ教育史』 pp.61-100.

5) ヨシムラさやか (2013) 「外国語から国語へ—沖縄における日本語教育史」 『Japanisch als Fremdsprache: Linguistische und sprachdidaktische Beiträge für den Japanischunterricht an deutschsprachigen Hochschulen』 .

6) 又吉盛清(2002) 「台湾の植民地的支配と沖縄」 『植民地文化研究 (1)』 pp.166-171.

7) 近藤健一郎(2005) 「近代沖縄における方言札の実態—禁じられた言葉—」 pp.3-14.

8) ねずまさし(1997) 『現代史の断面・戦時下の朝鮮・台湾』 校倉書房 pp.110-111.

9) 熊谷明泰 「賞罰表象を用いた朝鮮総督府の「国語常用」運動」 『関西大学視聴覚教育』 29号 pp.55-77.

를 통해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식민지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

조선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은 1942년 국민총력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당시 지방의 도지사들은 각지의 군수들에게 지시와 훈시를 통해 국어 상용화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각지의 군수들이 제출한 의견서와 답신서 등을 통해 각지에서 이루어진 ‘국어상용화’ 정책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어상용 가정’에는 통제 물자의 우선적 지급, 일부 부역 면제, 집세, 초등학교 입학 선택 등에서 대우 등의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국어 상용화를 확장시켜 나갔으며 무엇보다 ‘국어상용 가정’에는 문패를 제작하여 배급하고 ‘자발적으로 조선어 사용을 근절’ 시키고 ‘국어를 이해하는 자보다 먼저 조선어 사용을 절대 금지’ 시키는 방향으로 국어상용화를 실시하였다.

한편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장이었던 시마다 우시와카(島田牛稚)¹⁰⁾는 ‘국어상용화’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立派な皇国軍人は、全面的に国語の常用者であることが、絶対に必要であるべきである。かくして、今こそ朝鮮の人達は、永い間の使用によって得た朝鮮語への愛着も安易さも見事に振り切って、ひたすら国語の常用に転ずべき時である。(中略)我々は日本人であるが故に、日本語を学ぶといふよりも、むしろ日本語を学ぶことによって、日本人となるのである。(中略)朝鮮は始政後既に三十年を越えて居るが、其の間国語の普及や常用に努めて来た貴き経験は、直ちに執って今後の日本語普及にはよい参考であり、又よき手本でもある。其れ故朝鮮の人達が日本人として又国語の普及についても立派な先覚者であり、垂範者たるの誇を持ち得るのである。かくして今や全く議論を越えて、実際に国語常用を實行すべき時である。そして、その段階としては、国語の普及にとって、まづ国語の理解者を多くせねばならぬ。さうして理解者は直ちに常用者とならねばならぬ。たとへ普及に成功をなし、所胃国語全解運動といふも、要は常用を目的としての事である。」

훌륭한 황국군인은 전면적으로 국어를 상용하는 자이어야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조선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용에 의해 얻어진

10) 島田牛稚(1942) 「国語普及運動の展開」 『文教の朝鮮』 pp.2-9.

조선어에 대한 애착도 안이함도 훌훌 털어버리고 오직 국어 상용에 매진할 때이다. (중략) 우리들은 일본인임과 동시에 일본어를 배운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일본어를 배우는 것에 의해 일본인이 되는 것이다.(중략) 조선은 시정 후 이미 30년을 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국어 보급과 상용에 노력해온 귀한 경험은 그대로 집약되어 앞으로의 일본어 보급에는 좋은 참고가 되며 또한 좋은 표본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으로서 또한 국어 보급에 앞장선 선구자이며, 추종자인 것을 자랑스러워 삼을 수 있다. 어찌되었든 지금은 모든 논의를 떠나 실제로 국어상용을 실행해야만 할 때이다. 그리고 그 단계로서 국어 보급에 있어 먼저 국어 이해자를 많이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이해자는 바로 사용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보급에 성공하고 소위 말하는 국어 전해 운동 목적을 달성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잃고 만다. 그러므로 보급 운동이든 전해 운동이든 중요한 것은 상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어상용화’의 가장 큰 목적은 황국군인 양성을 목적으로 일본어 이해자를 늘리고 상용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본장에서는 각지의 국어 교육의 실태와 국어상용화의 배경, 그리고 상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1. 홋카이도

홋카이도는 북방의 방위거점이었으나 인구의 대부분은 야마토인인 식민자가 차지하고 있고, 소수의 선주민족이었던 아이누가 언어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강제 편입 초기인 1878년 에베츠토츠이시카리(江別太對雁)에 토민교육소(土民教育所)를 설치하였다.

1880년에는 사루군 비라토리무라(沙流郡平取村), 우스(有珠), 헤비타(蛇田)에 각 1교를 설치하고 각 20여명의 아동을 수용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그 외 홋카이도 각지에 산재해 있던 토인(土人: 아이누족 원주민)자녀는 부근의 관공립 또는 사립 소학교에 입학시켜, 일반 화인(和人: 본토에서 온 사람)의 아동과 같이 취급하였다.¹¹⁾

11) 西田直敏(1989) 「明治大正期の北海道・樺太における北方諸民族への日本語教育」 『甲南女子大学研究紀要』 p.108.

홋카이도에서는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로 당시 본토에서 사용되고 있던 심상 소학교용 검정교과서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본토에서 발행된 국어독본은 레벨이 높고 내국식민지인 홋카이도 아동의 능력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97년 문부성은 ‘홋카이도용 심상 소학독본’을 새로이 발간하며 국어교육에 힘을 쏟는다.

아울러 1901년 이후에는 ‘국립구토인소학교’ 21교가 설치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때부터 보호대상인 된 아이누족 원주민 자녀는 아마토(본토) 사람과 분리된 특수학교에 들어가게 했다. 이러한 홋카이도의 특수학교에서는 오키나와와 마찬가지로 국어와 천황숭배는 교육되었지만 교육정책에 투입된 예산이나 열의는 오키나와보다는 낮았다.

한편 홋카이도에서 행해진 ‘국어 강제보급’ 정책의 실상은 당시 아이누 소학교 중의 하나인 니부타니(二風谷)소학교를 1919년에 입학하여 다닌 가이자와 타다시(貝澤正)씨가 쓴 문장인 ‘遠足も焼き魚一匹もって’(소풍도 구운 생선 한 마리 가지고)¹²⁾에 잘 나타나 있다.

先生が学校で何を教えたかと言えば、①日本語の読み書きをおぼえさせ、日本人化をはかる。②天皇の崇高さを教え、内地日本人の偉さをうえつける。これを繰り返して反復し、骨のズイまでたたき込む、というものでした。優等生といわれるアイヌの子弟は、アイヌ語を捨てて日本語で話し、和人の日常をまね、和人の生活に溶け込もうと必死でした。これも教育のせいでしょう。そうになると、暗く貧しいアイヌの生活が、一日たりともイヤになる。そこでアイヌ部落をとびだし、他地へ移るもの、和人のなかに混在するものがでてきたのです。

선생님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쳤냐하면 ①일본어 읽기 쓰기를 외우게 하여 일본인화를 꾀한다. ②천황 숭배를 가르치고, 내지 일본인의 위대함을 심어준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뼈 속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등생이라 불리는 아이누의 자녀는 아이누어를 버리고 일본어로 회화하며, 일본인의 일상을 흉내 내며, 일본인의 생활에 녹아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것도 교육의 탓이겠죠. 그렇게 되면 어둡고 가난한 아이누의 생활이 하루라도 견딜 수 없는 지겨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락을 뛰쳐나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일본인들과 섞여 사는 이들과 나옵니다.

12) 竹が原幸郎(2010)『教育のなかのアイヌ民族—近代日本アイヌ教育史』, 社会評論社 p.84.

위의 글에서 보는 것처럼 1920년 이후 아이누 민족의 삶은 빈곤에 시달리며 일본인화를 강요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은 홋카이도 개척 초기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정책적으로는 그다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오직 새로운 식민지의 개척이었다. 이 사실은 삿포로 농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며 1891년부터 일본 최초로 식민학을 강의한 사토 쇼스케(佐藤昌介)가 1889년에 한 강연을 통해 그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다.

새로 농업을 영위할 장소는 우리 홋카이도를 빼고 어디에도 없으며, 무릇 홋카이도의 식민은, 즉 내국식민이며 내국식민은 이를 외국식민에 비하면 그 난이(難易)가 과연 어떠한가¹³⁾

이와 같이 그들은 농업을 영위할 장소로 홋카이도를 차지한 것이며 그들의 교육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다. 일본정부는 아이누 민족의 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갔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그들의 거류지를 제한하고 1899년에는 [홋카이도 구토인(旧土人)보호법]을 내놓았다. 이 법의 명목은 근농(勤農)과 교육에 두었지만 실제로는 아이누가 갖고 있던 토지소유권을 제한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곧 현실로 드러났다. 1899년의 법 제정에 의해 홋카이도청 장관과 내무대신은 아이누 민족의 공동재산을 장관 관리로 지정하여 장관이 관리, 처분할 수 있다고 천명하였다. 결국 3년 후인 1902년 홋카이도청 장관은 도카치 아이누 민족의 공유재산을 관리재산으로 지정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공유재산을 빼앗긴 도카치 아이누 민족의 자치자영조합은 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전술한 가이자와의 글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누 민족도 머지않아 일본 본토에서의 사회적 상승과 차별탈출을 위해 일본어 습득 지향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2.2.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일찍이 류큐 왕국이라고 하는 독립 국가로 독자적인 역사와 문

13) 이노우에 가쓰오(井上勝生)동선희 옮김(2014) 『메이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홋카이도에서 조선까지-』 어문학사 p.172.

화를 가지고 있었다.

1372년, 츠우잔(中山)왕 샷또(祭度)는 중국 명나라에 조공을 받침으로써 정식으로 왕으로 인정받고 드디어 통일 독립국으로서 승인되었다. 류큐는 조선·일본·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묶는 네트워크의 연결점으로서 발전해 갔다. 그러나 400년 전인 1609년, 시마즈(薩摩)는 도쿠가와 막부의 허가를 얻어 류큐 왕국에 무력으로 침입하여 통치를 시작했다. 시마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로부터 류큐의 지배권을 받음과 동시에 아마미제도(奄美諸島)는 사쓰마의 직할시가 되었다. 류큐와 여러 섬에서 지질 검사가 실시되어 사쓰마로의 상납이 결정되었다. 이후 260여년에 걸친 사쓰마의 지배 하에서 류큐는 중국과 일본의 양쪽에 속하는 나라로서 존속을 인정받았다. 사쓰마는 류큐와 중국 명나라와의 조공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고, 막부(幕府)에 대해서는 류큐 왕국에 경하사(慶賀使), 사은사(謝恩使)를 의무화했다.

1611년 시마즈 이에하사(島津家久)는 사쓰마에게 연행당한 류큐 국왕 쇼네(尚寧)에게 영지의 목록과 지켜야 할 ‘규정 15조’를 건네주고, 류큐로의 귀국을 허가했다.

근대 오키나와의 막을 열고 대만과의 관계가 시작 된 것은 1871년 오키나와 미야코섬의 공납선이 표류하다 대만 동남부에 도착해서 원주민인 파이완 족에게 69명 가운데 54명의 무역 상인들이 죽임을 당한 대만 조해사건 때문이다. 류큐의 귀속을 둘러싼 논의를 계속하고 있던 메이지 정부는 이 사건을 좋은 기회라 여기고 1874년 대만 출병을 일으킨다. 메이지 정부는 3600명에 이르는 군대를 인솔하고 원주민 거주지를 점령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베이징에서 중국과 교섭한 결과, 배상금과 함께 살해된 류큐 사람들이 일본에 속한 것을 청나라가 인정하게 되고 철병하였다. 류큐 사람이 일본에 속하는 것은 오키나와가 일본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류큐처분’으로 연결되었다.

1875년 마쓰다 미치유키(松田道之)를 처분관으로 류큐에 파견해서 류큐에 중국과의 책봉, 조공 관계 금지 등을 명했다. 류큐 정부는 현상유지를 위해 계속 탄원을 했지만 메이지 정부는 결국 오키나와현 설치를 강요하였다. 1879년 ‘류큐번을 폐지하고 오키나와 현을 둔다’고 명시한 포고 제14호를 계기로 류큐번의 폐지와 오키나와 현의 설치를 전국에 포고하였다. 류큐 왕국의 토지, 인민은 메이지 정부에 넘겨져, 이로서 15세기에 처음 통일 국가로 성립한 이래 450여년 계속 이어온 류큐 왕국의 체제는 소멸되게 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류큐번을 폐지하고 오키나와현을 설치한 후 즉시 오키나와인의 일본인화에 착수하였다. ‘언어풍속을 혼슈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 1879년 ‘회화전습소’를 설치하고 ‘오키나와 대화(沖繩對話)’ 교재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교재를 발간한 것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1880년에는 ‘회화 전습소’를 개칭해 오키나와 사범학교로 바꾸고 본격적인 교원 양성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일본어 교육에 가장 많은 힘을 쏟았다. 일본어와 오키나와의 말의 차이는 통역을 필요로 할 만큼 컸기 때문에 1880년에 오키나와현 학무과가 편찬한 ‘오키나와 대화(沖繩對話)’에는 전국 공통어인 야마토말과 오키나와 방언의 대역을 병기하였으며, 좌측에 작게 오키나와 말이 첨부되어 있다.

1894년 당시 조선 지배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어난 청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은 대만을 식민지로써 영유하게 된다. 또한 중국과 오키나와 귀속 문제를 매듭 짓고 중국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일본에 동화될 것을 강요하게 된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군사적 승리에 의해 청나라로부터 류큐를 넘겨받은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인의 일본인화에 착수하였다.

일본인화 교육은 가장 먼저 언어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홋카이도와 마찬가지로 오키나와도 그동안 국어교육에서 본토에서 발간된 심상소학독본을 사용하였다. 1897년 문부성은 ‘오키나와용 심상소학독본’을 새로이 발간하여 본격적인 국어교육 정책을 펼쳐나간다. 홋카이도용과 오키나와용 독본을 따로 편찬한 것에는 류큐처분으로 인한 내국식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오키나와에서 실시된 ‘국어 강제보급’ 정책은 ‘방언표’로 설명할 수 있다. 곤도 겐이치로(近藤健一郎)에 의하면 오키나와에서 철저하게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원들이 사용한 ‘방언표’는 1900년대 전반에 나타나 계속되어 오다 오키나와전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1972년 복귀 전후에 소멸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방언표’는 오키나와 방언을 말한 아동에게 건네져 목에 거는 벌칙표로 이것을 받은 아동은 오키나와 말을 말한 다른 아동을 발견하여 그것을 건네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실상은 참혹하였다. 서로 방언표를 받지 않기 위해 학교 내에서는 일체 오키나와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방언표를 갖고 있는 아동은 자신의 방언표를 다른 아동에게 넘기기 위해 일부러 발을 밟아 무의식 중에 토해 내는 오키나와 말을 구실로 방언표를 건네었다고 한다. 또한

방언표를 목에 건 학생을 교단 앞에 세워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동들이 자행되었다.

한편,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0 년에서 1921 년 사이 국제적인 상품이었던 설탕이 대폭락해 사탕수수 생산에만 의존하고 있던 오키나와는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장기간에 거친 만성 불황에 빠졌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오키나와 사람들은 돈벌이를 위해 내지로 객지벌이를 떠났는데 기록에 의하면 연간 2 만 명이 본토로 건너왔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국어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져 갔고, 오키나와 사람들 스스로가 일본어를 학습하려는 자발적인 동기가 생겨났다.

2.3. 대만

일제강점 초기 대만에서의 일본어 교육은 통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세운 ‘국어학교’ 1 곳과 각 주요 지역에 세운 ‘국어전습소’ 14 곳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후 1898 년 ‘대만공학교령’이 반포되고 각 지방 행정 기관을 중심으로 공학교를 설립하여 ‘국어전습소’를 대신하게 하였다. 하지만 1900 년 이전까지는 아직 통일된 국어 독본이 없고, 국어전습소와 공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던 교과서는 일본 본토의 소학교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곳과 대만총독부가 일본 본토에서 사용되고 있던 교과서를 편집하여 ‘대만적용’을 서명에 붙인 각종 교과서를 사용하는 곳 등으로 나뉘었다. 그 후 1901 년 『대만교과용서 국민독본(台灣教科用書國民讀本)』이 발행됨으로 대만에서의 본격적인 국어교육이 시작된다.

대만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은 1922 년 공학교의 한문을 주요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1927 년이 되어서는 한문과목을 완전히 폐지하였으며 대만어로 대화도 금지시켰다. 그 후 본격적인 황민화는 1934 년에 개시되었다.

대만사회교화협의회(臺灣社會教化協議會)의 이름으로 ‘요강(要綱)’이 총독부의 기관지인 『대만시보(臺灣時報)』 5 월호에 공표되었다. 그 중 제 5 항을 살펴보면 ‘五、國語の常用を普からしめること(일본어 상용을 평상시부터 철저히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1937년 9월에 국민정신총동원 실시에 따라 황민화 운동이 강화되고 이와 함께 전시체제 실시가 성명되며 구체적으로 신문의 한자란 폐지, 일본어 강제운

동, 초등교육의 의무화, 사조폐지, 신사참배 강제, 구정월 축하폐지 등이 실시되었다. 황민화 운동에 의해 강제된 결과 일본어를 말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채용과 징용의 기회를 주었다.

‘국어는 가정으로부터’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성공한 가정이나 부락을 표창하고, 또한 유리한 조건(배급을 늘려주고)을 부여하여 다른 가족, 부락과 경쟁심을 갖게 하였다. 일본어를 말하고 이름을 일본명으로 바꾼 집에는 ‘국어 가정’이라는 문패를 걸게 하고, 쌀이나 고기 그 외의 물건을 배급받을 때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하였다.¹⁴⁾

당시 초등의무교육 실시와 함께 1943년부터는 일본인들이 다니는 소학교에 대만아동이 다닐 수 있게 하고, 기존의 공학교는 폐지하고 국민학교로 개칭하여 철저하게 일본어를 아동에게 익히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은 군수산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징병에 필요한 대량의 인적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아침에 아동들에게 전날 집에서 대만어를 말한 사람의 손을 들게 하고 정직하게 손을 든 아이에게는 한 시간정도 운동장에서 서 있게 하였다.

2.4. 조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42년 징병제도 실시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일본어를 상용 할 수 있는 군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위정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국어보급율’이 저조한 점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징병대상 조선인 청년 중 일본어 해득 불해득 추정 인원 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징병 대상 조선 청년중 일본어 해득자 추정 인원

연도	징병 적령자 추정 인원	일본어 해득 가능 추정 인원	일본어 불해득 추정 인원
1941	193,007	50,735(26%)	138,924(74%)
1942	214,229	51,959(24%)	158,434(76%)
1943	224,936	54,930(24%)	165,679(76%)
1944	203,112	61,362(30%)	137,741(70%)

출처:조선총독부(1942)<극비 조선인 징집에 관한 구체적 조사>¹⁵⁾

14) 전계서 9, pp.110-115.

15)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2010)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경인문화사 p.14 재인용.

위의 표를 살펴보면 조선총독부는 조사를 실시한 년도를 기점으로 2년 후에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일본어 해독 가능한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소학교에서는 그동안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 오던 국어독본 교과서를 대신하여 일본 문부성이 제작한 교과서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대만의 사례가 큰 영향을 주었다. 대만은 1901년부터 대만총독부에서 자체 교과서를 편찬하여 사용해 왔지만 교과서 내용의 표기만큼은 일본 본토와 동일한 역사적 가나표기를 사용하여 학습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수준에 맞춰 표음적 가나표기를 한 조선의 일본어 이해자보다 대만의 일본어 이해자 수가 월등히 높은 결과를 낳았다.¹⁶⁾

한편 학교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은 ‘별칙표’를 통해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별칙표’란 학교 안에서 조선어를 사용한 아동에게 어떠한 별칙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면 ‘국어 애용 발음을 정확히’라고 쓰여진 풋말을 목에 걸고 있게 하거나 별칙표라고 쓰여진 풋말을 목에 걸고 있게 하거나 별칙표라고 쓰여진 카드를 서로 10장씩 갖게 하여 조선어를 쓸 때마다 상대의 카드를 빼앗는 방식도 취해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적과 상에 연관되어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별칙표가 서로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작용을 하였다. 이와 같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은 절대적 약자를 지배하기 위한 야비한 방법이었음에 틀림없다.

3. 열강의 식민지 언어정책

본장에서는 일본이 식민지에서 자행한 국어상용화 정책이 일본만의 고유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열강의 식민지 언어정책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6) 송숙정(2018)에 의하면 대만에서는 제2차 대만교육령 이후부터 일본인과 공학을 인정하고 1937년부터는 교과서도 통일하였기 때문에 자치적인 교육을 실시했던 조선에 비해 일본이 추구하는 식민지 언어정책을 펼쳐 나가기 용이했고, 그 결과 1941년에 일본어 보급률이 17.6%에 머물렀던 조선에 비해 대만에서는 1941년에 57%, 1944년에는 71%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동화정책에 실효를 거두었다고 판단했다.

3.1. 영국

1600년 동인도 회사를 건립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인도로 진출한 영국은 1757년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고 인도 전역을 차지한다. 1947년 인도가 독립을 이루기까지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는 방식은 간접적 통치 형태를 취하였다. 영국은 될 수 있는 한 영어를 강제하지 않고 토착어를 존중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어 보급정책을 펼쳐 나갔는데 인도인들은 처음에는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영국인들이 영어교육을 받은 인도인들을 고용하여 식민지 정부의 하급관리로 등용시킴으로써 영어 교육의 수요를 만들어냈다. 1837년 당시 총독이었던 오크랜드(Auckland)는 영어를 아는 인도인에게는 종족이나 종교를 묻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였다. 또한 1840년에는 관리 채용 조건 중에 '영어 해독자'라는 규정이 첨가되었다. 누구든 영어를 숙달한 원주민에게는 중요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영국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도 늘어났다.

한편 영국은 인도 전역을 차지하고 세력을 확장해 가며 미얀마와 충돌하였다. 그 결과 1886년 미얀마는 영국령 인도에 편입되었다. 영국은 미얀마에서는 가능한 한 현상 그대로를 유지하려는 문맹정책을 펼쳤다. 아무리 교육적 고려 가치가 있더라도 경제적 착취를 위해 방임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미얀마에서 인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어를 가르쳐서 하급관리로 채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목적이었다.

1782년 영국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내의 네덜란드 반대 세력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현재의 말레이시아 지역에 진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에 의해 점령당했지만, 일본이 패망한 이후 다시 말레이시아에 복귀하였다. 1946년 3월 영국이 말레이시아를 포기하기까지 영국은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 보급을 통하여 말레이사인을 동화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중국인, 타마르인등이 그들의 모국어로 교육을 행할 경우에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영국은 아프리카인을 영국적인 인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와 미래의 아프리카의 문제를 영국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아프리카인은 어디까지나 경작자로서 일할 수 있을 만큼만 교육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후일 영국의 공식적인 학교 교육은 새로운 엘리트 층을 형성하지

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간 계층으로 육성하여 식민지 통치를 위한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성시킨 것에 불과하였다.

3.2. 프랑스

프랑스는 본국 정부의 한 기구인 총독부나 혹은 기타 다른 관청에 의해 직접 통치하는 직접통치의 방식을 취하였다. 프랑스는 프랑스식 교육을 받은 사람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프랑스 시민화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858년 무력으로 베트남을 침공한 프랑스가 1954년까지 베트남에서 행한 언어정책은 초기부터 언어 하나를 더 가르친다는 의미로 프랑스어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베트남어를 완전히 제거하고 프랑스어로 대신한다는 것이 프랑스의 방침이었다.

또한 프랑스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행한 언어정책은 프랑스에서와 똑같은 교육과정과 언어를 사용하여 교육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세네갈에서는 엘리트층이 생겨나게 되었고, 엘리트층에게는 인문교육을 실시하고 하층계급에게는 직업교육을 주로 실시하였다.

3.3. 네델란드

네델란드는 원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강요하거나 부과시키지 않는 우민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1602년에 현재의 자카르타 시내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이후 네델란드의 식민지로 전략한 인도네시아가 1949년 12월 독립을 이룰 때까지 그들은 대만과 함께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3.4. 미국

미국은 자치주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미국식 민주주의 정치이념과 사회 및 교육제도를 이식하려고 하였다. 필리핀은 1571년부터 1898년까지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나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으로 1898년 미국으로 이양되었다. 1942년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하고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된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미국화에 의한 문화적 지배가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미국에게 경제적 의존도 지속하였다.

4. 나가기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일본이 식민지에서 자행한 국어상용화 정책에 대해 살펴 보았다. 내국식민지인 오키나와와 홋카이도에서의 국어 강제보급 정책과 해외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을 비교한 결과 첫째,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본이 행한 국어상용화 정책에는 강제성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방언표’ ‘별칙표’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어상용을 강제하였으며, 이것은 성적과 시상과 관련이 있어 학생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이 식민지에서 자행한 국어상용화 정책은 차별화를 통해 이를 받아들이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잔혹한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국어상용화 가정’은 여러 가지 혜택 등을 통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경제적 이익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비열한 제도였고 오키나와에서도 일본어가 가능한 자만 본토에 객지별이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잔혹한 것이었다.

셋째, 국어상용화 정책은 철저하게 일본의 필요에 의한 정책이었다. 전시국가 총동원령에 의해 징병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에게 국어상용화를 강요한 것은 그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열강의 식민지 언어정책을 살펴본 결과 모든 나라가 일본과 같은 직접 통치형 언어정책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영국은 통치하는 나라에 따라 언어정책을 달리 하였으며, 프랑스는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언어정책을 실시하였다. 네델란드는 우민정책을, 미국은 자치주의 원칙을 내세운 언어정책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식민지 언어정책은 프랑스의 언어정책의 형태와 가장 유사하지만,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영국의 예를 살펴보면 열강들이 식민지를 지배할 때, 언어를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여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활을 좌지우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국어상용화 정책만을 가지고 일본의 식민지 언어정책 전체를 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어상용화 정책 실시 이후 국어보급율이 크게 상승한 것을 보면 강제성을 지닌 이 정책이 식민지 언어 이데올로기¹⁷⁾의 전환을 가져온 것

은 분명한 것 같다.

금후 본고를 바탕으로 당시의 각 식민지 국어교과서의 내용상의 분석을 심화해 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대희(2016) 「언어 이데올로기와 한자 사용의 상관성 연구」 『東方漢文學』 第68輯, p.347.
(DOI: <http://dx.doi.org/10.17293/dbkcls.2016..68.345>)
- 송숙정(2018) 「일제강점기 조선과 대만의 중등교육 학제와 일본어 교육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pp.5-22. (DOI: <http://dx.doi.org/10.21481/jbunka..78.201808.5>)
- 이노우에 가쓰오(井上勝生)·동선희·옴김(2014) 『메이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홋카이도에서 조선까지-』
어문학사 p.172.
- 이성연(1988) 「열강의 식민지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2010)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경인문화사 p.14.
- 熊谷明泰(2006) 「賞罰表象を用いた朝鮮總督府の「国語常用」運動」 『関西大学視聴覚教育』
29号.
- 近藤健一郎(2005) 「近代沖繩における方言札の実態—禁じられた言葉—」 愛知県立大学文学部論集.
国文学科編 53, pp.3-14.
- 島田牛稚(1942) 「国語普及運動の展開」 『文教の朝鮮』 1942年8月号, pp.2-9.
- 竹が原幸郎(2010) 『教育のなかのアイヌ民族—近代日本アイヌ教育史』, 社会評論社.
- 内藤隆夫(2011) 「北海道近代史研究の課題」 『開発こうほう』 pp.28-32.
- 西田直敏(1989) 「明治大正期の北海道・樺太における北方諸民族への日本語教育」 『甲南女子大学研究紀要』
p.108.
- ねずまし(1997) 『現代史の断面・戦時下の朝鮮・台湾』 校倉書房 pp.110-111.
- 又吉盛清(2002) 「台湾の植民地的支配と沖繩」 『植民地文化研究 (1)』 pp.166-171.
- ヨシムラさやか (2013) 「外国語から国語へ—沖繩における日本語教育史」 『Japanisch als Fremdsprache: Linguistische und sprachdidaktische Beiträge für den Japanischunterricht an deutschsprachigen Hochschulen』 .

논문 투고 일자 : 2019. 10. 13.
논문 심사 일자 : 2019. 11.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11. 06.

17) 김대희(2016)는 이데올로기관 ‘신념이나 행동 양식 또는 가치관의 확장된 체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언어 이데올로기를 정의하면 언어적 행동과 태도에 관한 신념이나 행동 양식, 가치관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 要 旨 >

日本が植民地で行った国語常用政策に関する一考察

宋淑正

本稿は、日本が植民地で行った国語常用政策に関して調べたものである。その結果、第一に、国内外を問わず日本が行った国語常用政策には無理に強いられた政策であったことが分かった。「方言札」「罰札」などを通して学生に国語常用を強いて、それは成績と表彰と関連が深く学生が拒否できない強圧的なものであった。第二に、日本が植民地で行った国語常用政策は、差別化を通してそれを受けざるを得ない残酷なものであった。その例として、「国語常用家庭」は、様々な利益を与え、国民の心を奪い経済的な利益の前で膝をまげる卑劣な制度であって、沖縄の例も日本語が上達した者だけで内地に出稼ぎに行けたためそれを受けざるを得ないものであった。第三に、国語常用は徹底的に日本の必要によって作られた政策であった。戦時国家総動員令に従い徴兵に必要な人的資源を確保するため、彼らは国語常用を強いたのである。

一方、列強の植民地言語政策を調べると、様々な政策を広げ、イギリスは統治する国によって言語を変え、フランスは日本と一番類似した言語施策を実施した。オランダは愚民政策を、アメリカは自治主義の原則を掲げた言語施策を実施した。つまり、日本の植民地言語政策はフランスと一番似ているが、その言語を話せる者には差別的な待遇をするイギリスの例をみると、列強国が植民地を支配する際、言語を一番大きな武器として、その国民の生活を左右したことは明らかである。

A Study on Japanese Language Policy Used in Japanese Colonies

Song, Sook-Jeong

This study is investigated the Japanese language usage policy that Japan carried out in the colony.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first of all, it was a policy that was forced by the Japanese language usage policy implemented by Japan and abroad. The students were forced to use the Japanese language regularly through dialect tags, punishment cards, etc., which had a strong relationship with grades and commendations, and they were overwhelming. Secondly, the Japanese-language policy that Japan carried out in the colonies was cruel, as it was forced to receive it through differentiation. As an example, the "Japanese language regular family" is a sneaky system that provides various benefits, deprives the public of their hearts, and raises their knees in front of economic benefits. Because I was able to go to migrant inland, I had to accept it. Thirdly, the Japanese language usage was a policy that was thoroughly made according to the needs of Japan. In order to secure the necessary human resources for recruitment in accordance with the Wartime General Mobilization Order, they forced the use of Japanese. On the other hand, when examining the colonial language policies of the powers, they expanded various policies, the UK changed the language according to the governing country, and France implemented the language policy most similar to Japan. The Netherlands implemented a foolish policy, and the United States implemented a language policy with the principle of autonomy.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the British colonial language policy, which is the most common in France and France, and the British who discriminate against those who speak the language, when the powers rule the colony, the language is the best. Obviously, as a great weapon, it influenced the lives of the people.